

## 〈죽은 여자와 동침하기〉 설화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와 덕(德)의 상관성\*

정경민\*

<차례>

1. 서론
2. ‘유혹하는 몸’/‘반응하는 몸’으로 젠더화된 신체
3. ‘보은(報恩)’/‘덕행(德行)’으로 의미화된 섹슈얼리티
  - 1) 성적(性的) 위로에 대한 보은(報恩)의 지향
  - 2) 시혜적 성관계를 통한 덕(德)의 실현
4.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죽은 여성과 동침하는 남성의 이야기인 〈죽은 여자와 동침하기〉 설화에서 섹슈얼리티가 작동하는 방식을 살피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죽은 여성과 살아있는 남성이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행위가 성별에 따라 서사 내에서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섹슈얼리티가 사회적으로 수용, 재편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죽은 여자와 동침하기〉 설화에서 여성의 몸은 유혹적인 신체로, 남성의 성욕과 동침 행위는 유혹에 대한 반응으로 전제되었다. 또, 구비설화에서의 시간(屍姦)은 여성이 원기가 되는 것을 막아준 남성의 시혜적 행위로 수용되어 처녀와 그 부모의 조력으로 남성의 모든 결핍이 해소되는 보은담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한편 문헌설화의 남성 인물은 여성과의 결연 후 여성을 포함한 집안사람들이 모두 죽었으나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상황을 확인하고 그들의 장례와 제사를 지내줌으로써

\* 본 논문은 2020년 11월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조교수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고 그 후 사회적으로 영달하였는데, 이는 남성의 동침 행위와 장례 수행을 일종의 적덕(積德)으로 이해한 서사적 결말이다.

이렇듯 <죽은 여자와 동침하기> 유형의 설화는 삶과 죽음이라는 존재방식에 따라 남녀 인물이 성적 결합을 통해 교류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야기는 인간의 생래적 욕망으로서의 섹슈얼리티를 인정하면서도 불평등한 남성중심적 성 인식을 보여주었다.

□ 죽은 여자와 동침하기, 시간(屍姦), 여귀(女鬼), 섹슈얼리티, 사대부의 덕(德), 모은, 시혜적 성관계, 젠더화된 신체

## 1. 서론

설화에는 일상의 소소한 문제부터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까지, 우리 삶을 관통하는 다양한 문제와 그 해결방식의 모색이 담겨있다. 설화 속 인물들은 수(壽), 부(富), 귀(貴), 강녕(康寧), 다남(多男)과 같은 삶의 욕망을 회구하고 누리는가 하면 제도와 관습 등의 사회질서에 순응하거나 저항하면서 저마다 삶의 방식을 고민한다. 한편 설화의 향유층은 잘 사는 것만큼이나 잘 죽는 것에도 관심이 깊었는데, 이는 구성원이 잘 죽어야 나머지 공동체의 안위가 보장된다는 민간의 오랜 관념 때문이었다. 하지만 누구나 천수를 누리고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경우 그 망자를 어떻게 사회에 재기입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실에서도, 설화에서도 중요한 문제였다. 이에 대한 서사적 관심은 다양한 귀신 이야기와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양산했다. 특히 귀신의 속성상 산 자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한다는 점에서 귀신이라는 환상적 장치를 통해 현실 세계의 질서화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등에 대한 귀신 이야기 연구가 그간 활발히 이루어졌다.<sup>1)</sup>

한국 고전 서사에 등장하는 귀신의 대표 유형으로는 여성 원귀를 들 수 있는데, 여성 원귀가 대체로 처녀 귀신의 형상이라는 점은 흔히 한국 귀신 설화의 특징으로 언급된다. 그리고 많은 설화에서 처녀 귀신으로 등장하는 여성 원귀는 성폭행이나 상사(想思), 음행의 누명 등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원인으로 말미암아 원혼이 된다.<sup>2)</sup> 그런데 이들은 살아있을 때의 애정이나

- 1) 현재 귀신이나 귀신담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었다. 귀신의 분류에 대한 논의는 주로 귀신에 대한 문학적 연구 초기에 이루어졌는데 대표적 논의로는 임동권, 「귀신론」, 『어문논집』 10, 중앙대 국어국문학회, 1975, 김태곤, 「민간의 귀신」, 『한국 사상의 원천』, 박영사, 1976 등을 들 수 있다. 또, 귀신 존재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주주, 「귀신의 정신분석-라강 정신분석학적 입장」, 『한국학논집』 30,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3, 조현설, 「원귀의 해원 형식과 구조의 안팎」,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한편 귀신담의 의미지향을 사회와의 연관성을 전제로 밝힌 연구로는 억압적 현실에 대응하는 말하기 방식의 하나로 원혼모티프를 주목하여 그 담론적 성격을 밝힌 강진욱, 「원혼설화의 담론적 성격 연구」,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와 여성 원귀의 출현을 억압적 가부장제의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 본 최기숙, 「여성 원귀의 환상적 서사화 방식을 통해 본 하위 주체의 타자화 과정과 문화적 위치」, 『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및 「불멸의 존재론, ‘한’의 생명력과 ‘귀신’의 음성학」, 『열상고전연구』 16, 2002 등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조선시대 아담·필기류에 실린 귀신담에 대한 연구들과 고소설에서의 귀신을 주목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필요에 따라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 2) 여성 원귀와 섹슈얼리티의 상관성은 중국이나 일본의 귀신담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귀신담은 한국 설화와 일정 부분 동일한 생성원리를 보여주면서도 각 국가별 특징 또한 지니고 있다. 중국 설화에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음양관념에 입각하여, 귀신은 전적으로 여자로만 설정되며, 여자 귀신은 생전에 대부분 묘령의 소녀로 남자와 잠자리를 못하고 갑작스럽게 원한을 품고 죽어 버린다. 때문에 원초적 욕망인 성욕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형상화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혼결혼의 풍속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에 대해서는 박완호, 「인간적 욕망에 몸부림치는 여귀들의 이야기: 〈搜神記〉와〈太平廣記〉의 인귀연(人鬼戀) 고사를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29, 한국중국소설학회, 2009 참고.) 일본 귀신담의 경우 구애를 거절당한 여성이 뱀으로 원귀화하는 양상은 한국 설화와 유사하나 한국 설화에서는 여성의 좌절된 성적 욕망에 대한 연민이 작용한다면 일본 설화의 경우 여성의 정욕을 좌악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또 한국의 경우 성폭행과 음행의 누명으로 인한 원귀 서사를 대량 생산할 정도로 정절관념이 중요하게 전제되는 반면 일본 설화의 경우 기혼 여성이 원혼의 주류를 이루고 여성의 처녀성은 해원의 과정에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욕망의 좌절, 또는 성폭력이나 억울한 음행 누명 등의 이유로 죽음에 이르렀고, 죽음 이후 자신의 원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상대에게 복수하거나 제3의 문제 해결자를 통해 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을 살려주었으되 거두어 달라는 청을 거절한 신립 설화의 처녀는 원귀가 되어 탄금대 전투를 패배하게 만들고 신립도 죽음에 이르도록 했<sup>3)</sup> 으며, 월천에 대한 사랑으로 병이 깊어진 처녀는 자신의 애정을 무참히 거절당한 후 죽음에 이르고, 이후 상사뱀이 되어 월천과 그 가족을 모두 망하게 하였다.<sup>4)</sup> 또, 성폭행의 위기에서 저항해 살해당한 아량은 거둬 부사를 찾아가 범인을 색출하고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게 함으로써 해원하고, 공동

---

차이가 있다.(이에 대해서는 김난주, 「한·일 여성 원귀담의 비교 고찰-여성 원귀의 생성원리와 섹슈얼리티」, 『한국학논집』 7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8 참고.)

- 3) 신립과 처녀 설화의 서사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신립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산 중의 기와집에 하룻밤 묵을 것을 청했다. 2. 처녀가 일가족이 몰살당한 사정을 얘기하며 거절하였다. 3. 신립은 도움을 자청하여 밤중에 나타난 괴물을 퇴치하고 처녀를 구하였다. 4. 처녀가 거두어줄 것을 청했으나 신립은 이미 혼인한 몸이라며 거절하였다. 5. 처녀가 떠나는 신립을 불러 돌아보게 한 후 자결하였다. 6. 신립이 조령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처녀가 꿈에 나타나 탄금대로 옮기라 하였다. 7. 처녀의 말을 따른 신립은 패망하였고, 자결했다.

이 유형의 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 유형 '642-2 버림받은 여자 원귀되어 보복하기'에 다수 채록되어 있다.

- 4) 월천과 상사뱀 설화의 서사구조는 다음과 같다. 1. 글을 배우러 다니는 월천을 보고 마을 이방의 딸이 연모하였다. 2. 처녀는 편지를 써서 길목에 두었으나 월천이 이를 찢어버리자 낙심하여 병이 들었다. 3. 처녀가 죽을 지경이 되자 이방이 월천의 스승을 찾아가 월천이 자신의 딸을 만나도록 간청하였다. 4. 스승이 당부했으나 월천은 상민과 말이 통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스승의 거둬된 부탁에 마지못해 승낙했다. 5. 월천이 온다는 소식에 이방의 집에서는 손님 맞을 채비를 하였으나 월천은 새벽녘이 되어 서야 방 안으로 들어갔다. 6. 월천이 명주 수건으로 손을 감은 채 처녀의 얼굴을 한 번 쓰다듬자 처녀는 절망하여 죽었다. 7. 처녀는 상사뱀이 되어 월천을 따라다녔고, 이를 알아본 스승은 붓두검에 넣어주며 열지 말라 당부했다. 8. 월천의 동생이 그것을 열어 뱀이 집안사람들을 해쳤다. 9. 월천의 신주는 항상 뱀이 감고 있다고 한다.

이 유형 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 유형 '642-2 버림받은 여자 원귀되어 보복하기', '642-4 짐승으로 변해서 사랑하는 사람 해치기'에 다수 채록되어 있다.

체 안에서의 명예도 회복하였다.

그런데 설화에는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죽음에 이른 여성의 이야기 외에 죽음 이후의 여성 섹슈얼리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있다. 먼저 구비설화에서는 이미 죽어 시신이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 이야기가 전승되는데, 이는 『한국구비문학대계』 ‘633-8 죽은 여자와 동침하기’ 유형에 해당한다. 이 유형의 설화에서 여성은 성관계 후 남성의 꿈에 나타나 발화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한편 문헌설화에서는 죽음 이후의 여귀(女鬼)가 살아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남성과 동침하는 이야기들이 전승된다. 여귀(女鬼)와 남성의 성적 결합을 다룬 설화는 그 세부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본고에서는 상대가 살아있는 여성인 줄 알고 남성이 동침했으나 이후 그녀가 죽은 여성임을 알게 되는 유형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유형 문헌설화의 경우 남성 인물은 여성 혼령과 동침 후 시신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 이는 귀신과의 동침이라는 비현실적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결연이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남성 인물이 죽은 여자와 동침한 사건’임을 명백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위의 구비설화와 문헌설화를 〈죽은 여자와 동침하기〉 설화로 명명하고, 해당 설화에서 여성과 남성의 섹슈얼리티가 작동하는 방식을 살피고자 한다. 또,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행위가 성별에 따라 서사 내에서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삶과 죽음을 가로지르는 원초적 본능으로서의 섹슈얼리티가 사회적으로 수용, 재편되는 양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는 살아있는 여성과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다루고 있는 설화 및 여성이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말미암아 귀신이 되는 많은 설화에서 드러난 성 인식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면서도, 삶과 죽음이라는 존재방식의 차이에 기반을 둔 관계를 다루는 만큼 심화되거나 돌출된 지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설화 향유층이 공유한 성 인식의 일단(一端)을 드러내어 고전

서사 전반을 통해 드러나는 성 인식 및 성담론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2. ‘유혹하는 몸’/‘반응하는 몸’으로 젠더화된 신체

구전과 문헌으로 전승되는 <죽은 여자와 동침하기> 설화의 주요 모티프는 남성 인물이 죽은 여성과 동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비설화에서는 죽은 여성인 줄 알면서도 남성이 동침하는 반면 문헌설화에서는 남성이 살아있는 여성인 줄 알고 동침했으나 이후 죽은 여자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다. 먼저 구비설화의 자료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33-8 죽은 여자와 동침하기><sup>5)</sup>

번호	제목	대계	구연자 정보	채록 지역
1	치녀귀신과 결혼한 총각	2-6	주한운/남	강원도 횡성군
2	죽은 시체와 동침한 선비	4-6	유조숙/여	충남 공주군
3	치녀귀(2)	8-3	박순복/남	경남 진주시
4	원혼의 도움	9-1	안용인/남	제주도 북제주군
5	치녀귀신 면해준 머슴	현대구비문학	조희순/여	경남 산청군

2번을 제외한 1,3,4,5번 자료는 거의 동일한 서사구조를 지닌다.

1. 머슴이 일을 하러 가다가 장마에 물에 빠져 떠내려 온 여자 시신을 발견한다.
2. 살아있는 듯한 여자 모습에 머슴은 충동을 느껴 동침한다.
3. 여자가 머슴에게 현몽하여 은혜를 갚겠다고 한다.
4. 여자의 도움으로 머슴은 잘살게 되었다.

5) 유형 번호와 제목은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1) 한국설화유형분류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을 따른 것이다. 상위 유형 633은 ‘사람노릇 하는 것과 동침하기’로, 주로 이물교혼담을 포함한다.

이 유형의 경우 남성은 머슴, 즉 미천한 신분으로 설정된다. 각편에 따라 남성 인물이 노총각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 이야기에서는 신분적으로 미천한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성적으로 소외되어 왔는지 강조된다. 반면 여성은 대감집 딸로 그려지는 각편<sup>6)</sup>이 있으나 대개 그냥 ‘처녀’로 호명된다.<sup>7)</sup> 남성 인물이 모든 각편에서 머슴으로 등장하면서 처지가 미천하다 보니 나이가 들도록 여성과 성 경험을 못했음이 강조되는 반면 여성 인물에게는 신분 등 존재에 대한 정보가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 여성의 높은 신분이나 죽음에 이르게 된 사연 등은 모두 남성의 동침 행위 후 현몽을 통해 밝혀지는데 남성의 성적 충동과 해소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여성 인물의 신분과 사연은 다만 이후 남성에게 복을 주거나 남성의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될 뿐이다. 즉 이 유형 설화에서 여성은 그저 육체, 즉 젊고 생동감 있는 몸으로 등장한다.

웬 섹시가 말야, 아주 커다란 섹시가 물에 떠내려 와서 말야, 갯가 내 부처서 죽었던 말야. 만져 보니 금방 숨이 잦단 말야. 만져 보니 그 숨이 있는 것처럼 말야. 그래 풀썩에 엮고 들어 갔던지 원 어떻게 끌어 앓고 들어갔던지 들어가 가지고 말야, 죽은 데다가 이놈이 이 망한 놈이 참, 덤뻏단 말야. <자료 1>

옛날 한 여름에 큰 데수(大水)가 졌는데, 물지고 난 뒤에 돛골 누 집에 낚우 집 사는(머슴살이 하는) 한 삼십 세 이상 된 늙은 총각이 장개도 평생 문가고 이런 총각이 지계를 지고, 인자 아직(아침)에 나온께네, 이, 그 강가에 그 솔 숲에 처녀가 하나 떠내려와서 허허이 마 옷통을 벗긴 채로 누어 가 있는께, 아이, 저, 총각이 쳐라보이(쳐다보니), 천상 산 사람 곁고 매음(마음)이 동해 가지고, 그 함복(合腹)을 했더니만, 함궁(合宮)을 하고는 나서 보니까네,

6) 자료 1

7) 대감집 딸의 경우에도 여성의 신분은 현몽한 여성의 발화를 통해서 확인된다. 남성 인물이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는 그저 “금방 숨진 섹시” 정도로 인식된다.

죽은 사람이라. <자료 3>

달려들어가지고(달려들어서) 건전 보니(건져내어 보니) 목숨은 끈어졌됐, 거 O팍(살결)이 좋아서 거 어떻게 아름다운데 몰르고(모르고), 이눔도 푸나무 ? 레 멩기는 놈이니까, 머슴살이니까 예자꼴도 못 봤을 거란 말이우다. 허 허허허. 예, 죽은 사람이라도 O번 벳겨 보서(벳겨 놓아서) O번 O자고. 잇바 쓰(一發) 허여 뵈단 말이우다. <자료 4>

옛날에 인자 저 또 저저 대수가 졌는데, 물에 인자 떠내려가거든 처녀가. 머리가 넝청하이 떠내려가는데 고마 물에 다 뜯기가꼴랑은 싹 고마 다 뜯기뻘어. 다 뜯기가꼬 고마 알몸이 돼가 있는 기라. 알몸이 돼 가꼬 인자 떠내려가고 인자 물에 빠져논게 \*o o\*에 인자 걸리가 있거든. 그래 옛날에는 녀의 집 머슴 그거 지집근성이나 하고 장계나 갔나. 그래 인자 그 아가씨로 디다보다가 양달에 갖다 놓꼴랑은 그 인자, 그래 한번 면해졌어. 처녀 귀신을. <자료 5>

여성은 이미 죽었으나 “만져 보니 숨이 있는 것” 같고, “살결이 좋아서” 여전히 “아름다운” 몸이었다. 게다가 물에 떠내려 오는 동안 “옷통이 벗”겨지고 옷은 “다 뜯겨 알몸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여성의 외양에 대한 구체적 묘사는 궁극적으로 남성이 성적 충동을 느낄 만한 자극적인 몸이었음을 시사한다. 또, 발견자가 성적으로 소외된 불우한 처지의 남성이라는 설정은 여성이 저항할 수 없는 시신이라는 점에 보태져 남성의 성행위가 참을 수 없는 유혹적 상황에서 허용된 것이었음을 역설한다.

하지만 남성 인물의 시선으로 바라본 유혹적이고 자극적인 여성의 몸은 사실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상황에서 홍수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시신이다. 말하자면 여성의 죽음은 누구라도 피하고자 하는 비명횡사이자 사고사이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었던 죽음이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여성은 물에 떠내려 오는 동안 옷이 찢기고 벗겨져 거의 알몸

이 되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모습은 무참한 사고를 증명하는데도 이야기에서 여성은 애도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남성 욕정의 배설장소로 기능한다. 이는 비록 시체일지라도 젊고, 생기 있고, 아름다운 여성의 몸은 여전히 유혹적이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남성의 성적 충동은 수용될 만한 것으로 서사에서 허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번 자료의 경우에는 인물 설정 및 서사구조에서 문헌설화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여성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여성의 어머니가 남성과 딸의 관계를 주도한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이 설화에서 남성 인물은 기혼자인 선비로, 우연히 목계 된 외딴집에서 부인의 청으로 딸과 합방을 하게 된다.<sup>8)</sup> 다시 들른 외딴집에서 부인과 딸의 시신을 발견한 선비는 간밤의 일이 혼령이 자신들의 시신을 수습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함인 줄 알아채고 모녀의 장사를 지내준다. 이 설화에서 선비와 딸의 인연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인물은 부인으로, 딸은 발화하지 않고 스스로 행위하지도 않기에 그 존재감이 미미하다고 하겠다. 또, 여성(딸)의 원귀화(처녀귀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시체 수습과 장례 절차의 수행 여부에 서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를 위해 선비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이 딸과의 모의혼례, 즉 성적 결합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선비의 재방문을 위해서는 모종의 책임감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 동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8) “부디이 부디 내 딸을 좀 거둬달라구. 이롭게 단 둘이 사는데, 나는 곧 죽을 나이가 됐는데, 도저히 이 딸 여울 수두 육구 하닝개, 도저히 내 딸을 아내로 삼어 달라.”구 그러닝개, “아 나는 이미 아내가 있다.”구. “그저 아내가 있어두, 후 후실루다가 맞아 줘두 조니까, 부디 오늘 저녁이 내딸을 아내로 삼어 달라.”구. 그러구서는 사발이다 물을 한 사발 떠다 놓구서, 절을 시키구 그래 가지구 그 날 밤을 거기서 지냈어요. <자료 2>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 부인은 자신이 곧 죽을 나이인데 딸을 여의지 못하니 아내로 삼아달라 요청하는데, 이미 혼인해서 그럴 수 없다는 선비의 거절에 후실로라도 삼아 달라고 간청하여 합방을 성사시킨다.

한편 문헌설화에서 죽은 여자와 동침한 남성 이야기는 보다 다양한 양상<sup>9)</sup>을 보이는데, 그 중 동침한 여성이 사실 시체였음을 확인하는 유형은 『어우야담』 소재 〈귀신과 정을 나누는 박엽〉과 〈종량의 시신을 묻어준 무사〉이다.<sup>10)</sup> 두 설화의 공통 서사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남성이 길에서 미모의 여성을 보고 마음이 동해 왜 길에 혼자 있느냐고 회롱해 물었다.
2. 여성이 자신의 집에 함께 가자고 해 남성이 동행했다.
3. 여성과 함께 밤새 술을 마시고 곡진히 정을 나누었다.
4. 아침에 깨어나 보니 방에는 여자 시신이 누워있었고 집안에 온통 시신이 가득했다.
5. 관을 갖추어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주었다.
6. 이후 남성은 과거에 급제해 높은 관직에 올랐다.

문헌설화에서 죽은 여자와 동침하는 남성은 사대부로, 위 유형의 경우 아직 관직에 나가기 이전 젊은 시절의 일화로 구성된다. 남성 인물은 유생 혹은 무사로 등장하는데, 성격이 호협(豪俠)하거나 혈기왕성하고 의협심이 강한 인물임이 부각된다. 의외의 시간, 의외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을 만나

9) 문헌설화로 전승되는 〈죽은 여자와 동침하기/동침하지 않기〉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귀신인 줄 알면서 동침하기	최치원 (『태평통제』)
2	귀신이라 의심했으나 동침하기	이인보 (『보한집』), 〈기녀 귀신의 벌미〉 (『어우야담』)
3	귀신이라 의심하여 동침하지 않기	〈여귀가 된 궁녀와 황건중〉 (『어우야담』)
4	귀신인 줄 모르고 동침하기	〈귀신과 정을 나누는 박엽〉, 〈종량의 시신을 묻어준 무사〉 (『어우야담』)

본고에서 다루는 설화는 위 표 중 유형4에 해당한다. 1,2,3 유형의 설화들은 논의의 전개에 필요한 경우 언급하기로 한다.

10) 이 자료들의 내용과 작품 제목 등은 다음을 따른다. 유몽인, 신익철 외 옮김, 『어우야담』, 돌베개, 2006.

면서 남성의 호기심과 호감은 자극되는데, 이렇게 남성 인물이 처음 보는 여성에게 희롱과 수작을 마다하지 않는 조건은 여인의 미모였다.

머리를 땀은 미녀가 자색 비단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박엽의 옷깃을 스치며 지나쳤다. 박엽은 호협한 사람으로 젊어서는 질탕하여 예법에 어긋난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를 붙잡고 마음을 떠보며 말했다. “남자는 무엇 때문에 늦은 밤에 길거리에 있는 것이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왜 나를 맞이하여 가지 않는 것이오?” “어려울 것 없습니다. 다만 집안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길 것이니, 밤이 깊어지면 저희 집에 함께 가도록 하시지요.” <귀신과 정을 나눈 박엽>

한 무사가 훈련원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고 날이 저물어 돌아오는 길에 한 여자를 만났다. 고운 옷에 얼굴이 예쁜 그 여자는 사장(射場) 길 왼편에 서 있었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무사는 마음이 동하여 그녀를 희롱해 말하였다. “날도 저물었는데 텅 빈 사장에 웬 아름다운 아가씨가 홀로 서 계시오?” 여자가 즉시 얼굴빛을 바꾸자 봄바람처럼 다정한 기운이 가득했다. 이윽고 교태로운 말로 대답했다. “어디를 다녀오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날이 저물고 길은 멀어 이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중략) 드디어 함께 손을 잡고 남부동 궁벽한 마을로 갔다. <종량의 시신을 물어준 무사>

늦은 밤, 길에서 혼자 서성이는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옷 등 미색(美色)은 남성을 불러 세웠고, 슬쩍 던져본 수작에 대응하는 여인의 교태로운 말과 다정한 태도는 남성의 욕망을 자극한다. 그리하여 그는 이내 여성의 방으로 기꺼이 동행하게 된다. 이 설화에서 여성의 등장은 우연한 만남을 가장했지만 상대 남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에 가깝다. 다만 특정한 남성 인물을 지목해서 접근했다기보다 자신의 미모에 이끌려 집까지 동행하고, 함께 밤을 보낼 남성을 탐색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성을 자신의 집으로 이끌어야 하는 여성의 절박한 사정에 따른 전략

이었지만, 이를 알 리 없는 남성의 눈에 비친 여성은 그저 매력적이었으며, 여성이 주도한 하룻밤이기에 도덕적인 갈등의 부담감 역시 가질 필요가 없었다.

여성에게 마음을 뺏긴 남성은 잠자리에서조차 “물을 끼얹은 듯 차갑고, 시간이 지나도 따뜻해지지 않는” 여성의 몸에 대해 의아하여 그 까닭을 물었으나 “밤을 무릅쓰고 먼 길을 오다 보니 약한 몸이라 아직 차가운 것”이라는 여성의 대답에 안심한다. 남성은 여성의 미색과 적극적인 호응에 완전히 미혹된 상태로, 그들의 행위가 비정상적인 동침임을 감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남녀의 결합은 시종일관 여성의 주도적인 유혹과 이에 대한 남성의 반응으로 성사된다.

여귀(女鬼)의 뛰어난 미색이 남성이라면 뿌리칠 수 없는 유혹으로 작용하는 구조는 다른 문헌설화들에서도 반복된다. 이인보(『보한집』)는 “화식(火食)하는 사람 같지 않”음을 감지하고 괴상하게 생각했으나 “아름다운 모습에 그만 거절할 수 없”고, 자신을 “대하는 모습이 슬기롭고 영리하여 몹시 사랑스러웠”기에 운우지정을 나누었다. 또, 전라 감사 김씨(『어우야담』)는 “절대가인”인 여자와 매일 동침하다가 몸이 상하는 데 이른다.

이처럼 <죽은 여자와 동침하기> 설화에서 남녀의 결합은 여성의 몸, 즉 아름다운 용모가 남성의 욕망을 촉발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남성의 동침은 유혹적인 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서사 맥락상 자연스럽게 허용된다. 그러므로 구비설화에서 여성의 시신이 남성의 억눌렀던 성욕의 해소 장소로 기능하면서 극단적으로 물화(物化)된 양상을 보여주지만 설화의 전승 집단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문헌설화에서 여성의 미색은 남성의 동침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겠다.

### 3. ‘보은(報恩)’/‘덕행(德行)’으로 의미화된 섹슈얼리티

#### 1) 성적(性的) 위로에 대한 보은(報恩)의 지향

구비설화에서 〈죽은 여자와 동침하기〉 유형의 여성 인물은 남성의 동침 후 그에게 현몽함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한다. 그런데 그녀가 고맙다고 한 사안은 남성의 성행위로 자신이 처녀 귀신을 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인식은 그녀의 부모에게서도 똑같이 확인된다. 그녀의 부모는 행방을 찾던 딸의 시신을 수습한 데 대해 머슴에게 치사하는 게 아니라 머슴의 실토로 시신에 대한 성행위가 있었음을 알고는 총각을 사위로 인정하고 그의 결핍을 모두 해소시켜 준다.

그날 밤에 또 지는데 현몽하더라. 현몽하는데 색사가, “당신 때문에 내가 죽어도 송각시(주: 손가씨, 처녀로 죽은 귀신.)는 면했다.”고 말야. “면하고 당신한테 시집간 거와 마찬가지로 만큼 아주 고맙다.”고 말야. (중략) 그런데 새애기를 떡 구해서 장가를 들여주고 그 부자놈의 살림 하마 척 갈라가지고 말야 사는데 〈자료 1〉

얼굴이 조꿈(조금) 거 얹었어. 꿈보가 돼여서. 이, 청혼(請婚)이 아니온덴 말이우다. 삼십이 돼여가도, (중략) 이젠 죽은 후에도 원혼은 풀었다 허여서 밤의 꿈에서, “당신이 일생에도 못허여 본 거(것), 나 죽은 후에도 원을 한번 풀어주시니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 돼겠다.” 〈자료 4〉

그기 은혜 해 가지고 지 처자로 면해줬다고 은혜로 해 가지고 그리 부자가 되더라요. 그런데네 처녀가 처녀로 죽으면 평생에 저저게 빛이고 처녀로 돼가 있다야이까. 처녀로 돼가 있는데, 그 총각이, 총각이 가서 죽은 몸이라든가 죽어논게로 그런게도 한번 그거로 해가꿀랑은 처녀몸을 면해준기라. 면해줘논게로 그대 인자 양달에 갖다 물어줘놓고 은혜로 해가지고 그리 잘 살드래요. 〈자료 5〉

그 부모가, “울(우리)딸로 그랬으면 고마 사우(사위)를 삼아야 되겠다.”고  
그때 인자 용서간을 뺏아 가지고 그 처녀 집에서 난중에 새 장개를 드리 주고  
그 처녀를 처녀골 무덤에다가 저 묻어 놓은 무덤에다 제사를 지내주고 이런께,  
그 사람이 뒤에 부자가 되고 참 잘 됐다고 하는 이런 전설이 내려와. <자료 3>

이처럼 머슴의 동침 행위를 여성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녀 간 음양의 이치를 경험하지 못해 원귀가 될 것을 막아준 은혜로 인식하는 데에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인 성욕이 해소되지 못하면 죽음 이후 원귀가 된다는 전제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sup>11)</sup>

그런데 남성은 여성이 처녀라는 사실을 알고 동침한 것이 아니었고, 처녀로 생을 마감한 원한으로 인해 처녀 귀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침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남성은 물에 젖은 여성의 육체, 알몸, 살아있는 듯한 생기 등에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서 시간(屍姦)임을 알면서도 자제하지 못한 것이다. 죽은 여자의 살아있는 듯한 신체는 그 순간, 미천하고 소외된 남성의 완전한 통제하에 놓여있다. 그녀는 남성의 동침 행위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도, 행위를 필사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는데, 바로 이러한 점이 남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도록 추동한 셈이다.

사실 시간(屍姦)은 기괴하고 엽기적인 행각으로, 도덕적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다. 하지만 이야기에서는 그 대상이 처녀였기 때문에 남성의 일방적인 동침 행위는 온전히 남성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원귀가 되는 것을 막아준 선행으로까지 의미화되고, 이로써 남성

11) 조선시대에 이르면 처녀, 총각이 혼인하지 않는(혹은 못하는) 데 대한 사회적 염려와 대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구체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정도로 강해졌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국가 정책은 가난, 부모의 부재 등의 이유로 혼인이라는 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구성원을 사회가 구체한다는 복지적 측면과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사회의 틀을 공고히 하는 국가운영의 측면에서 요청되기도 했지만 처녀, 총각이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음양의 화기가 상하면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두려움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정성희, 『조선의 섹슈얼리티』, 가람기획, 1998, 18~20쪽 참고.

인물은 시혜자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처녀와 그 부모는 시간(屍姦)을 혼인으로 수용하였고, 남편(혹은 사위)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조력함으로써 남성의 결핍을 해결해 주었다. 즉 남성을 다른 여성과 혼인시켜주고, 자손을 얻도록 하였으며, 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말하자면 죽은 처녀와의 동침이라는 비정상적인 일탈행위로 남성의 성적, 경제적 결핍은 모두 충족되었다. 이는 남성의 행위를 여성에 대한 성적 위로로 이해한 결과이며, 설화는 이에 대한 보은담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sup>12)</sup>

처녀가 남성에게 다시 존재를 드러내는 각편의 경우 처녀의 요구사항은 제사의 형식으로 자신을 기리는 것이다. 즉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잊지 않고 사회의 관습, 관례 속의 존재로 기입함으로써 정상적인 죽음이 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사실 처녀가 머슴에게 고마움을 느낄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시신을 발견해서 부모에게 인도하거나 수습해준 사실일 것이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처녀의 죽음은 비정상적인 죽음으로, 즉 사후에도 불온한 존재가 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되기 때문이다. 처녀 부모의 태도를 보면 이를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부모는 딸의 시신을 확인하고 슬퍼하는 대신 안도하며, 머슴의 행위를 듣고는 분노하는 대신 기뻐한다.

그런데 이야기는 머슴의 행위가 여성의 처녀성을 제거함으로써 원귀 출현으로 인한 불안정과 전복의 위험으로부터 처녀 자신과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냈다고 포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살아있는 여성의 정절과 처녀성은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지켜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지만 죽은 여성의 처녀성

12) 이와 유사한 서사적 변모가 중국의 고사에서도 발견된다. 중국 고사에서 여자 귀신과 살아있는 남성과의 성적 결합을 다룬 경우 초기에는 여자 귀신에 대한 성적 위로가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여자 귀신에 의한 남자의 성적 위로로 변화되었다. 또, 여자 귀신의 형상 역시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남성들의 생리적 심리적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바뀌었다. 구비설화의 경우 죽은 여자가 귀신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죽은 여자를 통해 남성의 성적 욕망이 충족된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견주어볼 수 있다. - 박완호 (2009), 앞의 논문 참고.

은 사회공동체의 불안을 야기하는, 제거해야 할 잠재적 위험요소라는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그 역할을 수행한 남성의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부여한다. 즉 남성의 일방적 성욕 해소가 여성의 성욕을 해소해 준 것으로 치환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성은 죽은 여성의 구원자 반열에까지 오르게 된다. 그리고 이는 죽은 여자가 살아있는 남성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이에 대한 보은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제한다. 이는 인간에게 성적 욕구는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것이며, 따라서 이를 해소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함을 전제<sup>13)</sup>하면서도 이 같은 관념에 남성 중심의 성욕과 성 역할 구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설화는 여성이 의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성관계, 심지어 죽음 이후의 성관계까지도 ‘수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은’이 당연시되는 양상을 통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인간의 보편적 욕망으로 긍정적인 데서 출발했으나 철저하게 남성 중심으로 재편, 왜곡된 성 인식을 드러낸다.

## 2) 시혜적 성관계를 통한 덕(德)의 실현

문헌설화에서 죽은 여자와 동침한 남성이 사대부 혹은 관리로 등장하는 것은 양반 사대부가 기록하고 향유했던 전승방식의 영향<sup>4)</sup>도 있겠으나 설

13) 홍나래는 이와 관련해 “원녀에 대한 남성의 성적 맺음은 인간적 삶에서 성경험이 필수불가결함을 내세우면서도 그 이면에 여성의 사회적/정서적/육체적 욕망이 다양하게 교차되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하였다. - 홍나래, 「설화 속 시혜적 성관계에 내포된 주체의 도덕적 불안과 감정의 구조화 문제」, 『한국고전연구』 3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21쪽.

14) 특히 두 편의 설화가 실려 있는 『어우야담』은 유몽인의 저작으로, 대개 “읽는 재미와 함께 世敎를 목적으로 하여 사실성 지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역사기술적인 정확성에 구애받지 않고 이야기 속에 담긴 문학적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을 중시하였다.”고 평가된다. - 이경우, 「초기야담의 문학적 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26~116쪽. 신익철, 「어우야담의 서사방식과 초기 야담집으로서의 특성」, 『정신문화연구』 제33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10~30쪽. (현혜경, 「『어우야담』 소재 귀신담의 서사 전개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3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236

화의 의미 지향과도 연관된다. 〈귀신과 정을 나는 박엽〉 설화 속 박엽은 “호협(豪俠)한 사람으로 질탕하여 예법에 어긋난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인과 밤을 보낸 후 자신이 동침한 여성이 죽은 시신이며, 집안에 수습되지 못한 시체들이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하고는 비통해 하며 그들의 장사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주었다. 〈종랑의 시신을 묻어준 무사〉의 무사 역시 자신이 밤을 보낸 여자가 시체로 누워있음을 확인하고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으나 이내 그 뜻을 이해하고 염을 해서 묻고는 제사를 지내주었다. 이후 여성은 무사에게 현몽하여 보은을 약속하는데, 과연 무사는 이후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올랐다고 하였다. 이렇듯 두 설화에서 남성 인물들은 죽은 여자와 동침하였고, 여자의 정체를 확인한 후에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장례의 예를 다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현달하게 된다.

박엽 설화에서 여성과 그 일가는 굶주림으로 모두 죽음에 이르렀고<sup>15)</sup>, 무사 이야기에서 여성과 그 집안사람들은 전염병으로 모두 사망했다. 이처럼 두 설화는 전란과 전염병으로 인한 참상을 보여주는데, 집안 가득 시체가 쌓여있어도 이를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담아낸다.<sup>16)</sup> 이렇게 비참하고 심각한 사회상을 반영한 이야기에서 처녀 귀

---

쪽에서 재인용.)

15) 박엽(1570-1623)은 1597년(선조 30)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1601년 정언(正言)이 되고, 이어 병조정랑·직강(直講)을 역임하고 해남현감 등을 지냈다. 그 뒤 광해군 때 함경도 병마절도사가 되어 광해군의 뜻에 따라 성지(城池)를 수축해 북면의 방비를 공고히 하였다. 그리고 황해도 병마절도사를 거쳐 평안도 관찰사가 되어 6년 동안 규율을 확립하고 여진족의 동정을 잘 살펴 국방을 튼튼히 해 외침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설화는 박엽이 출사하기 전의 일화로, 이야기의 배경은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박엽의 생애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참고하였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B%B0%95%EC%97%BD&ridx=0&tot=1>)

16) 강상순은 이러한 유형의 귀신을 일종의 “사회적 증상”이라고 명명하였다. “원귀나 여귀(厲鬼: 필자 주 1. 제사를 받지 못하는 귀신 2. 돌림병으로 죽은 사람의 귀신)는

신과 젊은 사대부의 하룻밤 인연 소재는 환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가장 비현실적인 존재의 이야기에 가장 절실한 사회현실의 문제를 결부시킴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강렬하게 부각시키고 있다.<sup>17)</sup> 사정이 이러하니 여성은 적어도 집안의 실상을 보고 시신들이라도 수습해 장례를 지내줄 누군가를 데려와야 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왜 하필 젊은 여성의 혼령이 맡아야 했으며, 그 방식은 성적인 결합이어야 했을까.

이는 원귀는 대체로 여성, 특히 처녀 귀신으로 형상화되는 귀신담의 보편적 특성에 의거한 것이겠지만 남성에게는 섹슈얼리티의 추구에 대해 관대할 뿐 아니라 때로 권장하기도 하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조건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유교사회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통제되고 억압해야 할 본능이지만,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보편적 인간애로까지 미화되거나 확대되는 욕망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많은 설화에서 섹슈얼리티를 추구한 여성은 교화되거나 죽음 등의 방식으로 서사적 처벌을 받고, 자신을 원하는 여성을 거부하거나 섹슈얼리티를 지나치게 억제한 남성은 실패하는 인간으로 규정되는 것도 이 같은 관념이 반영된 결과이다.

박약과 무사 이야기에서 남성을 유혹하는 여귀(女鬼)는 스스로 남성 욕망의 대상이 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그것은 남성과의 성적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장례라는 의례를 통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죽음을 완성하는 것<sup>18)</sup>이었다. 여귀(女鬼)의 유혹에 하룻밤 인연을 맺은 남성은 자

---

사회 공동체에서 억압과 폭력, 희생이 빈발하는 지점, 그리하여 원한과 분노가 응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상상되는 지점에서 출몰한다. 그것은 사회 공동체의 결함과 무능 때문에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희생자들에게 살아남은 주체들이 지니고 있는 죄책감·부채의식 속에서 생성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해독하기만 하면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강상순, 『귀신과 괴물-조선 유교사회의 그림자』, 소명출판, 2017, 57~65쪽.

17) 현혜경(2017), 위의 논문, 240~241쪽.

18) 윤혜신은 이에 대해 “여귀는 ‘장례를 통한 안치(安置)’를 얻어낸’ 것이라고 하면서 “장례는 인간이 삶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는

신의 성적 욕망을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다. 이는 여성과 달리 남성은 성적 욕망과 덕성이 일치하거나 혹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추구하고 여성의 성적 욕망을 수용하는 것으로 덕성을 구성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유교의 성담론에서 여성의 도덕과 욕망은 양립할 수 없지만 남성의 도덕과 욕망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는 것<sup>19)</sup>이기 때문이다.

남성에게 성적 욕망에 대한 도덕적 제약이 있다면 과도한 탐닉에 대한 경계 정도일 것이다. 이는 여귀(女鬼)와 동침한 남성을 다룬 다른 유형의 문헌설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보한집』 소재 설화 이인보와 『어우야담』 소재 <기녀 귀신의 빌미>의 전라 감사 김씨의 경우 여성 귀신과의 동침과 그 쾌락에 일정 기간 빠져서 지냈는데, 이 이야기들에서는 동침한 여자 귀신 또한 성욕 자체를 추구하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여자 귀신의 욕망이 남성의 그것을 넘어서고 지속적인 관계를 요구하자 남성들은 회피나 축출, 퇴기로 대응한다. 이런 경우 여귀(女鬼)는 자신의 성욕을 추구할 뿐 상대 남성에게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제공하기는커녕 남성의 몸을 쇠약하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만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개는 섹슈얼리티에 있어 여성주도적 관계의 지속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에 반해 박엽, 무사와 동침한 여성 귀신에게 육체적인 관계는 수단일 뿐 그들이 남성과의 만남에서 원하는 바는 따로 존재했다.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은 후 그녀들은 남성의 눈에서 사라졌고, 이는 일회성 만남

---

계기를 마련해 준다. 장례를 통해 죽은 자는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사회 속에서 살게 된다. 역설적인 생존이다.”라고 하였다. 또 “이야기에서 여성은 전란 통해 굶주림으로 죽어 귀신이 되었지만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마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이 공적(公的)으로 인정되기를 바랐으며, 그 의미를 갖는 장례를 원했다.”고 분석하였다. - 윤혜신, 『귀신과 트라우마』, 지식의 날개, 2010, 65~66쪽.

19) 유교적 성담론에서 여성의 도덕과 욕망은 양립 불가능한 개념임은 다음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이숙인, 「정음(貞淫)과 ‘덕색(德色)’의 개념으로 본 유교의 성담론」, 『철학』 67, 한국철학회, 2001, 18~19쪽.

으로 둘의 인연이 종결됨으로써 남성에게 더 이상 관계에 대한 책임이나 부담감, 부채의식을 남기지 않았다. 하룻밤 인연을 맺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충동은 인간적 관계의 지속이나 서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설화 속 남성에게 그것은 단지 허용된 본능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회귀하고자 한다. 그 회귀가 여귀(女鬼)의 집착으로 방해받을 때 불화가 발생하고 새로운 원한이 맺히게 된다.

박엽과 무사는 여인의 미색에 끌려 예기치 않게 동침하게 되었고, 이는 그들에게 우연한 만남이자 달콤한 일탈행위였다. 그들의 섹슈얼리티를 통한 교류는 관계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실제적·실존적 만남은 아니었다. 젊고, 아름답고, 유혹하던 여성은 허상이나 환상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인의 정체를 확인하고 자신이 그 자리까지 이끌려오게 된 연유를 떠올리면서, 정욕의 하룻밤은 비로소 필연적 사건이 된다. 결과적으로 남성 인물에게 그 사건은 사대부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각성하는 중요한 삶의 변곡점이 되었다. 만약 그 순간 남성이 인간의 도리를 외면하고 도주했다면 이야기는 그 후 그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내용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여성은 다시 의협심 있는 남성을 찾아 밤거리에 나가 서성여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직면한 상황을 모면하려 들지 않고, 덕을 베풀어 대처했기에 관리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았다.<sup>20)</sup> 설화에서는 남성 인물들이 집 안의 비참한 광경에 깊은 슬픔을 느껴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했는데, 이는 제사라는 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를 그들이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즉 그들은 장례와 제사를 통해 진정성 있는 애도로 죽은 자와 교류했고, 이는

20) 죽음의 의례는 매우 '현실적인 계산'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다. 죽음을 대하는 의례에는 살아있는 자들의 현실성이 강하게 살아있다. 따라서 순수한 종교적 의미 외에 사회적 의미도 강하다. 망자의 도움을 받아 가문 번성을 꾀하는 목적 이외에도 망자에 대한 사회·도덕적인 의무가 보태진다.- 국사편찬위원회,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두산동아, 2005, 256쪽 참조.

남성 인물의 인격적 성숙과 도덕적 완성으로 귀결되었다.<sup>21)</sup> 즉 이 설화는 남성 인물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시험답이자 입사식답이라 할 수 있다.<sup>22)</sup> 요약하면 이 설화는 결과적으로 남성의 섹슈얼리티라는 자연적 욕구와 과거 급제와 높은 관직에의 진출이라는 사회적 욕망을 모두 실현시킨 이야기이다. 거기에 남성 인물은 덕성의 함양을 통해 인격적 고양까지 이루었다. 이러한 서사는 문헌설화의 주된 향유집단인 사대부가 선호할 만한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죽은 여자와 동침하기〉 설화는 남녀의 근원적인 섹슈얼리티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구비설화와 문헌설화에서 전제된, 인간이 남녀 간 음양의 이치를 알지 못한 채 죽으면 원귀가 된다는 상상력은 인간의 생래적 본능과 욕망을 인정하는 건강한 삶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인간에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 또한 포함된다. 그런데 사회가 경직되면서 본능은 인정

21) 금장태에 따르면 제사를 통해 인간이 '신'과 교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성과는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 데 있다. 이때 복은 어떤 이익이나 만족을 얻는 세속적 복의 의미와 전혀 다르다. 이때 복은 결코 밖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적 완성을 실현하고 사회적 규범을 실현하는 도덕적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제사를 지내는 인간의 도덕적 정당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금장태, 『귀신과 제사- 유교의 종교적 세계-』, 제이앤씨, 2009, 83~84쪽 참조.

22) 최기숙은 야담집에 등장하는 남자 귀신과 여자 귀신을 비교하며 대개의 남자 귀신은 조상신으로, 가족에게 모습을 드러내어 가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표현하는 반면 여자 귀신은 모두 억울하게 죽은 '원귀'나 '자살귀'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관리 앞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일차적으로 야담이 한문 해독력을 가진 사대부 남성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다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문헌설화는 기본적으로 사대부 남성의 입장과 시선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기숙의 논의에 따르면 여자 귀신들이 사대부 관리에게 모습을 드러낸다는 설정은 사대부들이 귀신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남자 귀신이 조상신으로 영원히 기러지는 데 비해 여자 귀신은 권력자가 억울함을 풀어주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귀신에 대한 상상력에 성별이라는 요소가 개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최기숙, 『처녀귀신』, 문학동네, 2010. 21~25쪽 참고.

하기보다 통제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특히 성적 본능의 경우 성별에 따라 다른 원칙과 규율로 위계화 되었다. 이에 억눌러도 다시금 생성되는 성적 욕망과 남성중심적 성 윤리는 서로 길항하면서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다양한 서사로 돌파구를 모색해왔다.

죽은 여자와의 동침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다룬다. 따라서 죽은 여자와 동침한 남성은 도덕적 책임이나 외부의 시선, 즉 사회적 평판 등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죽은 여자와 동침한 남성은 원귀의 출현을 막은 선의의 행위자로 이해받을 수 있고, 때로는 귀신에 홀린 일이라고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유로움 속에 발산된 남성의 욕망은 서사 안에서 시혜적 행위로, 배품의 미덕으로 수렴되었다. 동시에 수혜자인 여성은 그에 대한 보은의 의미로 남성의 결핍을 충족시켜주고, 사회적 성취를 도와 주었다.

죽은 자에게는 죽음 이후의 존재 방식, 즉 장례 의례와 제사가 중요한데, 이는 존재의 영속성을 보장받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 산 자에게는 성적 욕망이나 경제적 풍요, 사회적 성취 등과 같은 생의 욕망이 충족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이다. 이렇듯 이 유형의 설화는 삶과 죽음이라는 존재방식에 따라 남녀 인물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성적 결합을 통해 교환, 증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남성중심적 성 인식이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 4. 결론

이 연구는 죽음 이후의 여성 섹슈얼리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 즉 죽은 여성과 동침하는 남성의 이야기를 〈죽은 여자와 동침하기〉 설화라

명명하고, 해당 설화에서 여성과 남성의 섹슈얼리티가 작동하는 방식을 살피고자 하였다. 또, 죽은 여성과 살아있는 남성이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행위가 성별에 따라 서사 내에서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삶과 죽음을 가로지르는 원초적 본능으로서의 섹슈얼리티가 사회적으로 수용, 재편되는 양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죽은 여성의 시신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동침하는 남성의 이야기인 구비설화와 귀신인 줄 모르고 동침한 후 여성이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확인한 남성의 이야기인 문헌설화에서 여성의 몸은 유혹적인 신체로, 남성의 성욕과 동침 행위는 유혹에 대한 반응으로 전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섹슈얼리티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신체 혹은 행위가 ‘유혹’과 ‘반응’으로 구조화되는 것은 여타 다른 고전 서사에서도 확인되는 바이지만 그 유혹의 주체와 반응의 대상이 시신과 귀신에까지 확대된다는 점, 그리고 그 시신과 귀신은 여성에게만 한정된다는 점을 〈죽은 여자와 동침하기〉 설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 구비설화에서의 시간(屍姦)은 그 대상이 처녀였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이 원귀가 되는 것을 막아준 시혜자의 지위를 부여받았고, 남성의 행위는 여성에 대한 성적 위로로 수용되었다. 그 결과 설화는 처녀와 그 부모의 조력으로 남성의 모든 결핍이 해소되는 보은담의 성격을 보여준다. 한편 여귀(女鬼)의 유혹에 하룻밤을 보낸 문헌설화의 남성 인물은 여성과 집안 사람들의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비참한 광경을 목도하고 그들의 장례와 제사를 지내줌으로써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고, 그 후 사회적으로 영달하였다. 이는 남성 인물이 서사 내에서 사대부로서의 덕성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으로 수렴되었다. 이렇듯 구비설화와 문헌설화에서 남성 인물의 건강하지 못하거나 일탈적인 성적 욕망과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선의와 선행으로 수용되고, 적덕(積德)으로 의미화되었다.

이렇듯 〈죽은 여자와 동침하기〉 유형 설화는 삶과 죽음이라는 존재방식

에 따라 남녀 인물이 성적 결합을 통해 교류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야기는 남녀의 근원적인 섹슈얼리티 문제를 다루면서 성적 욕망을 추구하고 충족하는 것은 인간의 생래적인 본능이므로 자연스럽고 합당한 일이라는 성 인식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는 처녀와 총각의 죽음을 사회적 불안의 전조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후(死後)에라도 성적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혼령에게도 위무(慰撫)가 된다는 논리를 생성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죽은 여자와 동침하기> 유형의 설화에서 죽은 여성에 대한 시간(屍姦)이라는 비정상적인 욕망과 엮기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일탈적 성 행위는 오직 남성들에게만 허용된다. 게다가 시간(屍姦)의 대상이 된 여성은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사후에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러한 전개는 남성 중심의 불평등한 성 인식의 결과라 할 것이다. 즉 모든 인간의 성적 욕망은 자연적 존재로서 부여받은 본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 자체는 남녀 모두의 섹슈얼리티를 인정하는 건강한 삶의 원리를 의미하지만 남성의 욕망 추구에 대해서만 비정상적인 범주까지 용인하고 합리화하는 양상은 불평등한 남성 중심적 성 인식이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한국구비문학대계』 전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유몽인, 신익철 외 옮김, 『어우야담』, 돌베개, 2006, 1~859쪽.

### 2. 논문 및 단행본

- 강상순, 『귀신과 괴물-조선 유교사회의 그림자』, 소명출판, 2017, 1~340쪽.  
국사편찬위원회,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두산동아, 2005, 1~296쪽.  
금장태, 『귀신과 제사-유교의 종교적 세계-』, 제이앤씨, 2009, 1~318쪽.  
김난주, 「한·일 여성 원귀담의 비교 고찰-여성 원귀의 생성원리와 섹슈얼리티」, 『한국학논집』 7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8, 261~288쪽.  
박완호, 「인간적 욕망에 몸부림치는 여귀들의 이야기: <搜神記>와 <太平廣記>의 인귀연(人鬼戀) 고사를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29, 한국중국소설학회, 2009, 57~86쪽.  
신익철, 「어우야담의 서사방식과 초기 야담집으로서의 특성」, 『정신문화연구』 제33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7~34쪽.  
윤혜신, 『귀신과 트라우마』, 지식의 날개, 2010, 1~196쪽.  
이경우, 「초기야담의 문학성에 관한 연구: 어우야담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 학위논문, 1991, 1~209쪽.  
이숙인, 「정음(貞淫)과 ‘덕색(德色)’의 개념으로 본 유교의 성담론」, 『철학』 67, 한국철학회, 2001, 5~32쪽.  
정성희, 『조선의 섹슈얼리티』, 가람기획, 1998, 1~312쪽.  
최기숙, 『처녀귀신』, 문학동네, 2010, 1~176쪽.  
현혜경, 「『어우야담』 소개 귀신담의 서사 전개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3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221~258쪽.  
홍나래, 「설화 속 시혜적 성관계에 내포된 주체의 도덕적 불안과 감정의 구조화 문제」, 『한국고전연구』 3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5~40쪽.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ity and Virtue(德)  
in 〈Sexually combining with a Dead Woman〉

Chung, Kyung-min

This study examined the way sexuality of women and men worked in 〈Sexually Combining with a Dead Woman〉, a story of a man who sleeps with a deceased woman. With an emphasis on gender, this study examined how the act of pursuing sexual desire by living men with dead women is being semanticized in narratives, and analyzed the aspect of social acceptance and reorganization of sexuality.

In the story of 〈Sexually Combining with a Dead Woman〉, the corpse of a woman is a seductive body, and the sexual desire and sleep pattern of a man are supposed to be a response to temptation. In addition, the time in oral narratives was accepted as a kind act of a man who prevented a woman from becoming a spirit. It showed the character of a story of grace, which relieves all the deficiencies of men with the help of a virgin and her parents. On the other hand, male characters in the were able to achieve personal maturity by confirming the situation that all the family members, including the women, died after the relationship with women. Although the body was not recovered, they became socially mature by conducting the funeral rites and offerings.

The tales of 〈Sexually Combining with a Dead Woman〉 reveal the aspects of men and women interacting and influencing each other through sexual unions, through the existence of life and death. The story acknowledged sexuality as an innate human desire but highlighted the inequality of androcentrism.

**Key Words**

Sexually Combining with a Dead Woman, Sexuality, Female Ghost, Rape a Body, Favored Sexual Relationship, Story of Grace, Virtue, Androcentrism

논문투고일 : 2021.07.26.

심사완료일 : 2021.08.09.

게재확정일 : 2021.08.11.